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대, 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김덕삼* · 최원혁**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실존과 구조를 통한 제주문화의 분석
3.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한 제주문화의 확대
4.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통한 제주문화의 창조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문화의 변화와 다양성은 기존 문화이론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물론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반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징, 자연 지리적 조건,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 등이 작용하여 제주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때는 제주문화를 위축시키고, 어떤 때는 웅비하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자연과 역사가 어울려 감동을 주는 제주문화의 힘을 새로운 틀로 이해해 보려했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

* 대진대학교 교양교직부(제1저자)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교신저자)

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을 제주문화에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보려 하였다. 먼저 실존적 접근과 구조적 이해를 통해 제주문화를 분석해 보려했다. 그리고 공감과 유비를 통해 제주문화의 확대를 생각해 보았고,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통해 제주문화의 창조를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확장하고, 창조적 성공까지 유도하는 구도를 만들어보려 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사건으로 점철되었던 제주도의 과거를 희망과 기쁨의 미래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주제어: 제주도, 실존, 구조, 공감, 유비, 세렌디피티(Serendipity)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다양한 문화가 조우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헌팅턴이 설파한 '문화가 중요하다'는 울림은 이미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자리하였고, 우리의 삶은 문화라는 이름의 프레임 속에 문화를 즐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문화에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문화는 인류의 공통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이보다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발휘될 때 짝퉁문화가 아닌 진품 문화, 명품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자신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과거 제주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다. 한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는 유배지가 되기도 했으며,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군사기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 원주민에게 내륙보다 일본을 선택하게 할 정도였다. 즉, 제주도는 나와 타자로부터 버려진 곳이 되기도 했다.

이랬던 제주도가 달라졌다. 섬이라는 특징, 자연 지리적 조건,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진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각광을 받고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여유는 환경과 참살이 문화를 생각하며 제주도를 떠올리게 했고, 정보화는 바다라는 지리적 공간으로 고립된 섬을 해방시켜 세계와 소통하게 만들었으며, 세계화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또한 교통과 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척박한 곳을 살기 좋고 쾌적하게 탈바꿈시켰다. 치열한 경쟁과 각박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제주도가 고립된 자연속의 휴식 공간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골고루 갖춘 제주도와 제주도의 문화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발달하면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사회를 읽는 방법도 일원화 혹은 기성이론을 토대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또한 기존의 것만 따르다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경로의존성'과 같은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제주도의 문화를 보려했다. 본고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제주문화에 접근하는 이론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방식이 새롭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다른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은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철학, 문학, 사회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이론들의 복합적 적용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전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제주도 문화를 분석하고 창조적 문화를 만드는 단초로서 '실존과 구조'를 통한 접근을 시도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존적 접근은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심으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있

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을, 성찰(Reflection)의 작업을 통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화의 출발은 자기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시대와 조우하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실존적 입장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존이 순수하게 어떤 영향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와 우리의 차이에서 생각해 보면, 나와 우리는 '구조적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우리'에서는 나와 너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실존과 구조를 통한 분석을 토대로 공감과 유비적(analogical) 사유를 이용한 문화의 확대를 시도해 보았다. 자기 문화에 대한 성찰을 마쳤다면, 자기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재해석과 확대가 필요한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감과 유비적 사유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즉, 실존과 구조에서 찾은 자기 문화의 확대로서 유비적 사유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비적 사유는 중국 철학에서 강조된 상관적(correlative) 사유와 비슷하다. 또한 연상적 사유라는 말과도 통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귀납논증에 가까워 동양적 사유 양식과 비슷해 보인다. 문학 작품 그 가운데에서도 시에서 유비적 사유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고대 중국 철학의 『장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우언(寓言)이라는 것도 이러한 사유 방식과 같은 선상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유 방식과 더불어 동양에서 발달한 공감이라는 것이 맞물려 문화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은 현대 문화산업에서 자주 거론되는 '스토리텔링'의 생산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비적 사유와 공감은 사람들의 비슷한 느낌을 토대로 스토리

텔링을 만들고 이를 함께 공유하기 좋기 때문이다. 문화의 확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를 공감과 유비적 사유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제주문화를 확대하는 데 적용하려 했다.

끝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창조의 다양한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우연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에 의한 창조, 즉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통한 제주문화의 창조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세렌디피티는 잘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함이 존재한다. 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장, 창조를 각각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무리함과 이를 구체적인 지역문화에 적용한다는 무리함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의의를 갖고 시도해 보려한다.

2. 실존과 구조를 통한 제주문화의 분석

현대 문화는 실존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반실존주의'로 시작된 후기현대철학을 고려한다면, 오늘날의 화두는 '실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실존'의 개념은 정신병리학에서 '트라우마'처럼 잊고 싶어도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1]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문화는 현대인이 찾고자 하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구조적 실존에 대한 답을

1) 김덕삼・최원혁, 「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9호, 2013, pp. 455-456.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한 제주문화는 현대 문화에서 찾고자하는 실존 문제의 해법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2] 일체의 실체적 가정 없이 나, 여기, 지금이라는 상황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실체적인 문제 해결 틀인 실존 개념은 자유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2가지 문제 틀 밖에 없던 유럽에서, 유럽이 처한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3]

나,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의 개념으로 실용성을 접근한다면 실용성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나, 여기, 지금에서 본 20세기 실존 개념과 21세기 실존 개념과의 차이점은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실용주의까지 포용하는 실존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4] 그러므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을 기초로 제주문화를 고찰해야한다. 예를 들어, 사전으로 유명했던 브리태니커는 인터넷 사전의 발달로 어려움을 겪었다.[5] 그런데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고찰한 이후에 돌파구를 찾았다. 즉, 브리태니커는 두꺼운 종이 사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급 지식을 파는 회사'라는 '나'에 대한 자각, 현재 여기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사회로서 브리태니커의 권위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필요

2) 제주의 역사는 끊임없는 육지로부터의 수탈과 그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pp. 20-51.) 그러나 칭기즈칸에게서 경영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한때 유행했듯이 『해녀처럼 경영하라』는 책을 쓴 전경일은 제주 해녀에게서 칭기즈칸 못지않은 민속경영학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전경일, 『해녀처럼 경영하라』, 다빈치북스, 2010).

3) 앞의 논문, pp. 459.

4) 위의 논문, pp. 469-470.

5) 브리태니커가 이런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 1978년 브리태니커는 백과사전의 디지털화에 착수했고, MS보다 4년 앞선 1989년에 CD롬 백과사전을 만들었으며, 위키피디아보다 7년이나 앞선 시기에 세계 최초의 온라인 사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7년 E-Blast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검색 포털 구글과 비슷하다.

로 한다는 '여기'와 '지금'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합일점인 온라인 교육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하였다. 제주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주도의 실존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섬이다. 섬은 고립되어 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Islands)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000㎞ 떨어져 있는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諸島)다. 고립되어 있기에 다양한 생물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군사적으로 주목받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는 주요 요지로 사용되었다. 제주도는 고대에는 유배지로, 근대에는 떠나야할 곳으로 버림받았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사람들이 찾는 파라다이스로 바뀌었다. 파라다이스의 특징은 단절이다. 그러나 단절은 능동적이고 자발적 행위며, 고립은 피동적 행위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도 전자는 고립이고 후자는 단절이다. 단절은 능동적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다. 고립은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행하다 생각한다. 과거 제주도가 갈라파고스제도처럼 섬으로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장점이 되어 자발적 단절을 찾고, 고립으로부터 보존된 결과물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고 있다. 제주도가 가진 가장 커다란 실존적이면서 구조적인 특징이다.

둘째, 상황에 따라 축복과 재앙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제주도의 자연 조건이다. 동서로 73㎞, 남북으로 31㎞인 제주도는 섬 중앙에 위치한 1950m의 한라산과 368개의 오름, 160여 개의 용암동굴로 이루어져있다. 작은 섬에 이렇게 많은 동굴과 오름이 있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는 연평균 14℃로 따뜻하고, 한라산이 있어 고도에 따라 다른 기온을 가지고 있다. 내륙과 다른 자연 조건 속에 제주도만의 이국적 정취와 문화를 만들었다. 제주도는 대

부분이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었지만, 제주 원주민의 노력과 세대의 변화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 조건은 재앙에서 축복으로 변했다.

셋째, 제주도는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한국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예를 들어, 일제말기에는 극동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일제는 한반도에 배치된 일본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7만 명 정도를 제주도에 주둔시키기도 했다.

제주문화는 이상의 세 가지 특징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했다. 첫째와 둘째가 실존적 측면의 것이 강조된 것이라면, 셋째는 구조적 측면의 것이 강조되었다. 각각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이러한 것에 의해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작은 도(道)이면서 가장 큰 도(島)로서 자기만의 색깔을 유지한 채 존재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세 가지 동인이 제주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제주도와 제주문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 제주도의 많은 가정에는 일본산 코끼리 밥솥이 육지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형제와 친척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다. 과거 제주도 사람은 육지보다도 괄시와 천대가 심한 일본으로 생존을 위해 건너갔다고 한다. 고대에는 유배지로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불과했다. 그러니 과거의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4·3사태와 같은 역사적 상처를 관광의 대상으로 삼는 다크 투어리즘은 과거 한때, 아름다운 자연 관광과 더불어 사람들이 제주도를 기억하는 두 가지 아이콘이 되었다.[6] 물론 지금은 많

6) 지금은 일본군 전적지를 찾는 것은 줄어들고, 4.3 투어는 '북촌'이나 '백조일손묘' 등 일부로 축소되었으며 그 대상도 학생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

이 희석되었지만 다크 투어리즘이 제주도의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다크 투어리즘으로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지보다 승리와 기쁨의 관광지이다. 관광객은 여행지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그 자연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활용한 문화에 더 감동한다. 실제 제주도의 가치는 다크 투어리즘보다 더 훌륭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발휘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제주도의 문화를 한의 문화와 같은 불운과 슬픔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 과거 일부 제주도민은 스스로의 문화가 주체적인 문화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도입된 융합과 식민의 문화라는 인식아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지 못했다. 어떤 측면에서 로마 문화와 중국 문화는 제주도 문화보다 더한 식민의 문화였고, 외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도입한 수용과 융합의 문화였다. 이제는 '나와 여기와 지금'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 문화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 문화와 중국 문화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고유문화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7] 제주문화처럼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가 많다. 그러므로 외부 문화를 얼마나 자기에 맞게 활용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다. 바뀐 기준으로 제주도 문화를 평가할 때 제주문화는 로마 문화나 중국 문화만큼 관광객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고난극복의 문화를 통해 활력을 얻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는 이재수

다. 다크 투어리즘은 제주도에서 힐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7) 『일리아드』『오딧세이』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모방하였고 알파벳도 동양에서 기인하였음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다.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은 독자적 창조성보다는 문화 수용의 독창성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발터 부르케르트,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적 전통』, 2008, 사계절, pp. 31-68.).

의 난에서 장두를 맡는 이재수와 같이 머리 좋고 의리 있는 사람이 많다고 평가 받았다.[8] 제주도 사람들이 의리가 가장 두터운 것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공동체가 가진 윤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운명이 긍정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4.3 제주항쟁을 다룬 영화 "지실"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는 일제시대 이후에도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순박한 민심을 유지해왔다. 제주도의 민심이 소박하지만 이를 단지 순수함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제주도의 공동체 의식은 수많은 외침에서 비롯된 자생적 생존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제주도가 상업화된 오늘날까지 제주도의 공동체의식은 궨당문화[9]로 선거에서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실존과 구조의 변화 속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는 삼무(三無)와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三多)를 둘러싼 논쟁은 제주 문화가 가진 실존과 구조를 잘 나타낸다. 먼저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는 삼무(三無)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장혜영 등은 온돌문화가 초래한 독립정신의 부재와 사유재산과 개인재산의 퇴색으로 보았다.[10]

장혜영은 중국 사합원의 높은 벽은 바깥으로부터의 나쁜 공기의

---

8) 제주도민은 조선 시대 이래 교육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내재된 능력을 발휘 못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현용준, 앞의 책, pp. 40-41). 그러나 제주는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전되어 있고 다양성도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 도둑이 없는 것은 육지와 달리 한 집 건너 사촌 같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었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제주는 이재수의 난에 나타난 장두과 같이 제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문화가 많이 있다. 모두가 한 가족 같은 제주도 공동체의 모습은 IT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미래의 공동체상을 보여준다.

9) 부계친족, 외척, 처족들을 총괄하여 궨당이라 한다. 궨당은 돌보는 식구인 권속(眷屬)을 의미하는 권당(眷堂)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현용준, 앞의 책, pp. 220-221).

10) 장혜영, 『한국 전통 문화의 허울을 벗기다』, 어문학사, 2010, pp. 41-63.

유입을 막아주고 환기를 적절케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중국이 한국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11] 장혜영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은 한국 문화에 대한 오랜 재야 지식인으로 활동해 온 윤병하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윤병하는 이어령, 이규태 등과 달리 한국문화를 공감과 유비적 사고로 접근한다. 먼저 온돌이 초래한 노동의욕 상실, 담 낮고 문 없는 사유재산과 경쟁 회피 경향에 대해 한국은 집을 높게 지어 외부에서는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12] 온돌 높이에 맞게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낮추어진 담은 외부보호와 내부 경관을 동시에 만족해 준다. 또 통풍에 대해서도 자동 대류장치원리로 인하여 추운 겨울에 사합원보다 열효율이 높은 환기장치를 만들었고 온돌문화가 초래한 개량배제 완전지향적 특성은 한국이 협력적인 태도로도 세계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다음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三多)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제주 문화가 하와이나 괌, 일본 등과 달리 세계적 관광지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삼다에 대해 장혜영 등은 환경을 극복 못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나약한 정신으로 해석한다. 또한 윤병하 등은 세계적인 돌문화를 제주가 일어 놓았음을 언급한다. 바다가 주는 바람은 제주를 18,000신이 있는 문화지로 만들었고 제주를 가장 특징 있게 하는 돌경계를 만들었다.[13] 이는 나,

---

11) 위의 책, pp. 25-26.

12) 윤병하, 『합-1, 버림받은 우리 문화 이야기』, 한국사회문화연구소, 1997, pp. 168-169.

13) 제주도가 18,000신을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고 지배시대에 들어 왔던 라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티벳의 라마교를 몽고식으로 바꾼 몽고의 라마교는 몽고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불교보다 더욱 샤머니즘과 보완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제주 불교는 몽고 라마교의 전통양식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폄하되고 저평가되었다고 한다(현용준, 앞

여기, 지금이라는 실존과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의 문화를 보여준다.

제주도는 실제 가장 아름다운 경관만큼 가장 강렬한 고난극복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이룩해 온 문화의 가치를 현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제주문화에 대한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관광은 관광으로 키워야 한다. 관광은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광(光)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을 찾아가 꿰뚫을 만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관(觀)]이다. 이제 제주도는 시대와 공간이 요구하는 요청에 따라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관광은 나를 치유하고 너를 치유하는 치유의 관광으로 변할 수도 있다. 또한 제주도를 도덕군자의 섬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성장 할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나쁜 짓을 하면 도망갈 곳이 없다는 섬의 오랜 특징과 깨끗한 자연을 매개로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특별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대에 들어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 세계 7대자연경관,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더불어 다양한 국제회의와 국가정상회담 등을 개최하여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실존적, 구조론적 특징인 섬, 자연, 지정학적 동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 책, pp. 261-267.).

3.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한 제주문화의 확대

제주문화는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하여 문화적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전과 달리 공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은 그 대안으로 '공감'을 찾았다. 소위 유물론의 붕괴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후 그 동안 경시되었던 인간의 공감능력 혹은 현상학적 공감감정에서 이성을 초월하거나 혹은 이성의 실제적 근원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실제 뇌과학 분야에서도 공감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울 뉴런이 발견되었고, 인터넷의 발전 속에서 공감이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 사회 현상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인문학을 정신치료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인문치료에서도 공감은 중심주제가 되고 있다.[14] 상실의 시대, 피로 사회에서 허기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자각,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있는 여기와 지금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이것은 선진(先秦) 시기 유가(儒家)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를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공감하며 풀어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 즉 실존과 구조의 근거가 된다. 공감하기 때문에 실존과 구조에 대한 파악이 중시된다.

공감이 문화이론의 키워드로 대두되는 것은 공감이 문화의 기반이 되는 도덕이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이 도덕이론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교문화의 근원이 공감에 있었다는 것을 서양에서 재발견했기 때문이다.[15] 공감의 측면에서 유교문화는 제주에서

14) 김덕삼 · 최원혁, 「선진유가(先秦儒家)에 나타난 共感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한국유교학회(韓國儒教學會), 『유교사상문화연구(儒教思想文化硏究)』 제54집, pp. 392-393.

15) 위의 논문, pp. 393-399.

도 발견된다.[16] 공감이론은 유비적 사유와 상호 보조하며 문화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문화는 오늘날 공감이라는 주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의 궨당문화는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공감문화로서 유교문화의 매우 고귀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주가 특히 자연을 닮은 유비적 사유와 공감의 문화를 가진 것은 제주 자연 자체가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주의 자연이 하와이나 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제주도 자연의 바위 하나하나에 모두 유불선의 고사와 음양오행의 자연이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불선은 동양인에게도 잊혀지고 서양을 통해 부활하고 있지만 1년 360일과 같이 360개의 오름으로 된 제주는 솥과 시루를 닮은 성산 일출봉과 산굼부리, 불의 길 물의 길을 보여주는 한림공원 만장굴 등이 있어, 자연자체가 공감과 유비적 사고를 보여준다.

유비적 사유란 오늘날 복잡계 과학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과거 미신으로 간주하던 동시성과 만물의 유사성은 오늘날 복잡계 과학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360일과 같이 360개의 오름으로 된 제주도와 솥과 시루를 닮은 성산 일출봉과 산굼부리는 복잡계 과학을 거대한 자연으로 보여준다.

용암의 분출부터 시작되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보유한 제주도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부터 제주도의 유비적 문화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남태평양 한 가운데 우뚝 솟아 바다와 육지의 용암분출이라는 유비적 대조로부터 문화가 시작된다. 일찍

16) 제주도 유교문화는 함덕-화순을 축으로 구분되어 동남지역은 유교문화로 장남봉사가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제주로 유배 온 유생들이 지배층만 위하고 백성을 무시했다고는 하나 조선시대 이후 제주의 풍속은 유교적 영향을 받아 대각선 축을 기준으로 동남지역이 유교의 문화가 더 두드러진다고 한다(현용준, 앞의 책, pp. 215-220).

이 제주도 문화는 진시황의 서복이야기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만으로도 문화가 된다. 제주도는 진시황이 명하여 불로초를 찾아 떠난 서복 일행의 종착지로 역사책에 가장 먼저 기록된다.[17] 한중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복의 제주 전래가 맞다면 제주 문화는 당시동북아 최고 문명이었던 중국 진나라와 제나라의 문명으로부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

17) 진시황 관련 역사적 사실들이 점차 발굴됨에 따라 서복이 제주도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삼성혈의 신화를 서복과 연결하여 제주 문화의 기원을 찾고 있다. 삼성혈을 동북 아시아 전체에 걸쳐 있는 설화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하는 기존 해석(현용준, 앞의 책, pp. 58-59)과 달리 서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고, 부, 양이라는 세 성이 당시 중국에만 있던 성이며 이 세 성은 서복이 1차 원정 때 일본으로 가기 전 낙오된 세 사람이었다고 한다(홍순만, 『서복 집단과 제주도』, 제주문화, 2003, pp. 57-60.). 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는 서귀포시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전 이사장 우규일에 따르면 서복은 다시 본격적인 집단이주를 기획한 2차 원정을 성공했으며 이 때 일본에서 제주에 남겨놓은 세 사람을 위해 세 명의 공주를 보낸 것이 혼인지의 전설이라는 것이다(우규일, 「서복의 동도(東渡)와 제주 삼성혈 신화」, 『금교(金橋)』, 2012년 4월호, pp. 124-129.). "혼인지"의 전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복의 TV대하드라마 제작은 한중일 합작으로 진행하다가 일본 재무장 관련 국제 분쟁으로 현재 중단 중에 있다고 한다.('2009 제4회 아시아방송작가콘퍼런스'에서 서복을 주제로 한중일 합작 드라마 제작 합의, YTN 2009.6.4. 보도). 서복에 관한 한중일의 논의는 한중친선협회와 서귀포시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논의는서귀포시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가 발간하는 잡지『영주서복문화』제10호와 논문집『영주서복문화논총Ⅱ』와 정창원,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대한 연관성 탐색」, 역사실학회, 『역사와 실학』 51, 2013. pp. 185-209를 참조함.
중국과 일본은 서복의 제주도래를 기정 사실화하며 동북아 문화를 서복의 영향권으로 분석하는 많은 연구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张良群, 『中外徐福研究. 第二集(中日韩三国学者供稿 汉日语对照)』 中国科学技术大学出版社, 2010.). 삼성혈 신화는 서복의 고사와 시대적으로 문헌적으로 한중일의 역사와 후손들의 증언과 실제 일치한다고 한다. 서복의 동도를 연구해 온 한중친선협회는 2010년은 서복선생이 동도한지 2220년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복의 후손들이 서복을 기린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역대총리 가운데서도 서복의 후손이 있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는 시진핑을 비롯하여 고르바초프, 부시, 양상곤 등이 방문한 뒤 행운과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섬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이 행운을 찾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18]

서복의 이야기는 제주 자연환경에 동양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비적 구조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가 당시 삼신산으로 지목된 것도 제주도가 가진 자연의 유비적 대조가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그 자연만으로도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유비적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한 제주문화의 확대는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주도 문화의 다양한 확대가 여러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을 근거로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적용한 제주문화의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제주도는 진시황 때부터 삼신산으로 꼽힌 만큼 동서양의 지수화풍, 음양오행, 신선사상이 자연 환경에 풍부하게 녹아있는 집결지이자 미래의 이상적 사회를 보여주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지형에 풍수학적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19] 올레길로도 유명한 제주도지만 제주도에는 올레길보다 더 큰 자연의 지혜를 담고 있는 물과 불의 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이미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한 제주문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제시해 보겠다. 제주도에서 한림공원→산방산→용머리→천제연 폭포→정방 폭포 코스는 물의 길을 보여주고,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만장굴

18) 시진핑 주석도 2006년 7월에 제주도 서복공원을 방문한 후, 불우한 시절을 딛고 절강성 당서기로 승진하여 국가 당서기까지 올랐다.

19) 본고에서 언급한 풍수학은 오늘날 동양의 지리학으로 재평가되고 경제대국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중국과 서양에서도 재평가되고 있다. 풍수학은 풍수학이 기반하고 있는 음양오행이라는 유비적 사유로 말미암아 풍수학적 자연 그 자체가 관광객에게 자연의 문화적 감동을 전해 준다.

→성산 일출봉→산굼부리는 불의 길을 보여준다.

한림공원(협재굴, 쌍용굴)→산방산→용머리→천제연 폭포→천지연 폭포→정방 폭포로 이어지는 물의 길을 보면 먼저 한림공원에서는 용암동굴이자 석회동굴인 쌍용굴과 협재굴이 있어 좌청룡 우백호를 이룬다. 협재굴에는 굴 내부 천정에 호랑이 무늬가 있다. 호랑이는 풍수지리에서 우 백호(右 白虎), 즉 서(西)를 의미하고 이것은 유비적으로 의(義)를 의미한다. 협재굴의 입구에 우백호가 있는 것은 실제 협재굴은 서, 쌍용굴은 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어지는 쌍용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이 있다. 용은 좌(左), 동(東), 즉 인(仁)을 의미한다. 산방산과 용머리를 지나 본격적인 물의 길은 제주 서귀포의 3대 폭포에서 나타난다. 제주도 중앙의 중문단지에 위치해 있는 천제연 폭포는 옥황상제의 일곱 선녀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천제연 폭포의 대표적 명소는 3단 폭포이다. 천제연의 3단 폭포는, 천, 지, 인 이므로, 천지인 삼재(三才)라는 천문과 유비적 관계를 보인다. 폭포를 자세히 관찰하려면 신선이 건넌다는 선임교를 지나가며, 3단 폭포와 한라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제루(天帝樓)도 있다. 천제연 폭포는 인간 사회의 문제가 자연을 주재하는 천제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제주도만의 경지를 자연의 힘으로 보여준다.

천제연 폭포가 천제의 힘을 보여주는 장관이라면 천지연 폭포는 원만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천지연폭포는 폭포뿐 아니라 주위 경관이 타원형으로 오직 하늘, 땅, 폭포만이 보인다. 타원형은 제주도의 모양, 우주 은하계의 모양이다. 협재굴에서처럼 천지연폭포로 들어가는 길 양편에는 바위에 나무가 자라나는 데, 이는 목기(木氣)와 금기(金氣)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천지연 폭포의 이름이 가진 천지의 의미처럼 천지연 폭포로 들어가는 길 또한 천지의 모습인 새 을(乙) 자 모양을 하고 있어 밖

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다. 태을 태일 등 乙자는 중국의 창힐이 만든 최초의 글자로 새싹 을, 새 을의 의미를 갖는다.[20] 새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리면서도 감탄할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乙은 우주생성의 움직임, 물이 흘러가는 수면의 파동 모양 등을 형상한다. 천지연 폭포에는 강이 있어서 바다로 흐르는데, 실제 강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짧은 강으로 600m이며, 천지강이라 한다. 즉,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강이지만 뜻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된다.

굽이굽이 돌아오던 물길은 정방폭포에 와서는 급격히 빨라진다. 정방폭포는 서북으로 3000리에 있었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하를 시켜 한국에 있는 삼신산을 찾게 했는데, 그 삼신산이 한라산(영주산), 지리산(방장산), 금강산(봉래산)이었다. 서복과 관련하여 정방폭포 좌측벽 두 번째에 서복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서복과차(徐福過次)"의 글이 써져 있었다고도 한다. 여기서 서귀포의 세 폭포에서 불로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유비적으로 서복이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관광객은 상상하게 된다.

다음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만장굴→성산 일출봉→산굼부리로 연결되는 불의 길은 불과 인간의 유비적 관계를 보여준다.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살펴보면 박물관에는 제주의 풍속과 자연, 생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제주의 흙은 하늘의 5운6기와 유비적 관계를 가지듯 5가지 모래와 6가지의 색이 있다 한다. 박물관 옆에는 신산(新山)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88올림픽 때, 한국에 최초로 봉화가 들어왔던 곳이다. 관광객은 제주 자연에 나타나는 천문과 자연의 유비적 대응에서 우주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만장굴에서는 제주도와 거북의 유비적 대응을 볼 수 있다. 거북

20) 데이비드 네메스,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 제주시우당도서관, 2009, pp. 266-267.

은 현무라 부르고 현무는 물을 상징하지만 불 기운인 용암이 만든 돌을 현무암이라 하듯 거북은 물속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현무암은 서양의 지수화풍과 동양의 음양오행의 접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제주도는 거북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 도로까지도 그 모양이 같다. 길이 또한 13.42km (1+3+4+2=10으로 음, 양의 양수에서 제일 크다)이다. 만장굴 제2입구 60m 지점에도 돌거북 형상이 있고, 1km 지점에 용암 기둥이 치솟아있고 김영사굴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물(용암) 흘러간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1.6수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곳의 기온은 사시사철 16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장굴에는 현무(북, 거북)가 앉아있는 2.8km 지점에 날개가 분명한 봉황새가 남 굴에 있고, 좌청룡 우백호에 북현무 남주작이 다 있어 우주의 근본을 보여준다. 남주작은 현무와 대비되어 불을 상징한다. 만장굴의 불기운은 물과 대조되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물방울로 대표되는 수는 땅 위에서 아래까지 40m를 스며들어 맺혔다. 신서(神鼠), 천서(天鼠)라고 부르는 박쥐가 산다. 만장굴의 모습은 乙자로 조화의 상징으로 가는 길목과 같다.

다음 성산 일출봉의 성산 꼭대기 위에 바위를 보면, 양(洋)은 내려오고 소(牛)는 산으로 올라가는 바위가 있다. 성산 일출봉은 수중에서 표출되었으며, 전설에서 말하듯이 99마리의 동물들이 소원을 빌고 있는 듯하다. 성산에서 보는 일출은 새 세상에 대한 대응을 느끼게 한다.

끝으로 산굼부리를 보면, 산굼부리는 한라산이 용암으로 폭발할 때 형성된 곳인데 안이 9만평, 분화구의 폭은 100-140m이고, 열봉 높이가 438m, 그 둘레가 2,070m, 그 속에 자생하는 식물은 420종인데, 그 속에서는 겨울에도 딸기가 익는다고 한다. 산굼부리 내부에는 남과 북이 음양으로 명확히 갈라져 있어 식물의 분포도 다르다. 눈 덮인 산금부리에서 익어가는 빨간 딸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를 꽃피워가는 제주 자연의 힘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예로 든 것처럼 제주문화는 공감과 유비적 사유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밖에도 제주도의 자연에 얽힌 전설, 신화, 문화, 역사, 일상 문화에도 유비적 사유를 찾거나 적용하면서 제주문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유비적 사유란 전체와 개체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체를 이해하든 개체를 이해하든 동일한 구조로 사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비적 사유와 공감은 구조와 실존의 문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유비적 사유는 동양 문화의 특징이면서도 제주문화에 접목하기 좋은 소재이다. 유비적 사유를 적용하여 제주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제주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의 특징에 따라 유비적 사유가 더 도드라졌기 때문이고, 제주는 고립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나, 여기,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4.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통한 제주문화의 창조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우연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바꾸는 힘' 등으로 풀이된다. 세렌디피티는 영국의 소설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 1717-1797)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페르시아의 우화 『세렌딥의 세 왕자들(The Three Princes of Serendip)』을 읽고 감명을 받아 친구 호레이스 만에게 편지를 써서 "우연에 따른 대발견을 '세렌디피티'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후 세렌디피티란 말이 오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 세렌디피티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렌디피티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들이나 우연적 사건들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정서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이성 밖의 것

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을 살펴보면, 이성적인 정서로 일을 처리한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성적인 것보다 비이성적인 것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세렌디피티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력하는 자의 실수와 실패는 자주 무시되었다. 그러나 세렌디피티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우연적 실수와 실패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므로 세렌디피티를 통해, 성실히 '노력하는' 과정 속의 실수와 실패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제주문화의 창조에서도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러한 것을 이성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비이성적 영역의 경우를 포함하면서도 그 방안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이성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이성적 방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기존의 많은 인물들은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일반사람이 닮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렌디피티에서 거론되는 인물(혹은 사건)들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 보통 사람으로서 자기 일에 보다 성실히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보통의 일반적인 것들에게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세렌디피티가 다루는 것이 주로 우연이라는 것으로 낯설어 보이고, 현대적 사고에서는 타파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볼 때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성과 비이성의 구분도 모호하지만, 세렌디피티를 통해 우리 삶의 잃어버린 혹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포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렌디피티를 통해 많은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는 무수히 많은 발명과 발견으로 점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많은 업적과 결과물을 살펴보면, 뜻밖의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 성공에 이르게 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학분야의 경우를 보면 많은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세렌디피티와 관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 X선, 페니실린, 비아그라 등이 그러하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도 마찬가지다.

제주문화의 창조 가능성을 세렌디피티로 분석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점은 첫째 섬으로서의 고립이 문화 창조자의 노력을 단기적으로 끊임없이 촉구했다는 점, 둘째 자연적 요소가 제주의 부침을 재촉했다는 점, 셋째 제주의 지정학적 구조가 우연에 의한 영감을 장기적으로 자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렌디피티는 제주문화의 창조에서 우리가 새롭게 고려해 볼 만하다. 제주문화의 세렌디피티적 특징은 앞서 실존과 구조에서 살핀 섬이라는 것, 자연적 조건,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문화에 유비적 접근을 통해 제주문화를 확대할 수 있고, 세렌디피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확대 즉,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문화의 실존적 구조적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섬이라는 것은 고립적 성격과 진출이 용이하다는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문화가 번성할 때는 진출이 용이하여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지만, 문화가 침체할 때는 홀로 고립되어 주위의 시선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건의 전후에 우연적 요소가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렌디피티로서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반도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경계를 이루는 일본의 해양문화, 중국의 대륙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역시 자신의 문화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주문화의 위치와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제주문화를 살펴보면 우연성을 활용한 문화적 저력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삼다수'는 마실 물이 부족했던 제주도 섬의 한계를 극복한 또 하나의 반전 드라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세렌디피티가 존재한다.[21] 현재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활용도 앞서 살핀 제주의 특징을 극대화한 창조적 접근이다. 과거로는 오랫동안 이어온 조랑말 문화와 연계하고 미래로는 무공해 자동차, 무공해 도시, 환경 수도로 확장한다면 또 하나의 세렌디피티가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영어 특화도시나 국제학교도 고립과 개방의 제주적 상황에서 찾을 또 하나의 세렌디피티다. 더 나아가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고립에서 적극적 개방의 섬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낙후와 발전에서 찾을 것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 자연환경이 제주도를 낙후시키는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처럼 자연과 어울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극복했던 전력이 제주에는 있다. 제주민의 성실하고 뛰어난 개척정신은 돌섬을 가꾸고, 가꾸면서 나온 돌을 담처럼 쌓았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 검은 용이 내려앉은 것 같은 장관을 이루었다.[22] 과정 하나하나가 필연이라기보다 우연적 사건에 의해 진행되지만, 인간의 필연적 노력과 태도에 의해 창조적 성공이란 세렌디피티를 보여주었다.

제주 올레도 결국 고립된 섬, 밖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제한된

---

21) 물론, 삼다수의 탄생과 발전을 세렌디피티만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함수가 종합되어 있다. 그러나 물 부족 현실을 타파한 제주도의 상황이나 개발과정에서 우연을 성공으로 이끈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다(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세계』, 경문사, 2001, pp. 69-71.).

22)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 유산을 유지·보전·활용하기 위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이 중요농어업유산 2호로 지정되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면서도 '경계' 속에 자신만의 경계를 소유하며 바다와 뭍의 경계, 자연과 인간의 경계,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경계 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섬의 우연성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23] 제주는 다른 곳과 달리 천혜의 자연자원이 사람과 어울려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 또 하나의 귀중한 자원보고가 될 것이다.

또한 섬은 여성이 많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조성했다. 예를 들어 김만덕은 한국 역사상 평민신분으로 기부를 통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여인이 되었다. 이제 이를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발전도 결국 여성의 활용에 달려있으니 이를 제주문화에서 창조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퀀당 문화로 불리는 것처럼 가장 공동체가 발전된 문화를 이루었다.

'여성 존중 문화', '올레'에서부터 최근에 거론되는 '영어 특화도시', '환경수도', '힐링과 클린의 도시'에 더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기차의 활용'까지 제주문화의 대부분은 자연의 어려움을 극복한 문화일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한 문화였다. 즉, 여기에는 반전을 더하여 성공으로 이끈 '세렌디피티'가 존재하는 문화다. 세계는 오늘날 제주가 부딪혀 온 문제점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문화가 해결해 온 문제 풀이의 과정은 아픔과 상처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연성이라는 것을 창조적 성공으로 바꾼 세렌디피티는 제주문화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세렌디피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23) 올레는 이웃 나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세렌디피티의 좋은 예가 되었다. 일본의 규슈 올레가 2012년 2월 1차 개방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제주 올레의 많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올레라는 이름, 이정표 등, 그래서 규슈관광추진기구는 (사)제주올레에 매년 업무 제휴비 명목으로 100만 엔을 지불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4년 3월 14일자, S1면

다양한 우연과 실수도 포용하는 열린 문화와 문화적 포용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문화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유비적 감동은 우연성에 기초하여 역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제주의 역사는 영욕으로 얼룩진 육지문화와 달리 자연이 가진 유비적 순수함으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 역사는 필연적 요소만이 아니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존재해 왔다. 역사를 필연적 노력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연적 요소와 함께 보면 다양한 창조적 소재가 발견되고, 오늘의 난관을 긍정적 창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제주의 역사적 부침 속에는 우연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과 유비적 사유의 요소가 존재하는 데, 이는 고려시대 삼별초에서도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몽고에게 오래 저항하고 삼별초를 도왔던 제주의 역사는 제주를 넘어 인류와 공감하는 바가 크다. 제주는 조선시대 이르러서는 성리학이라는 보다 절제된 문화체계를 맞이한다. 제주는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섬이 되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며 제주에는 아픈 기억이 많았다. 제주는 마침내 현대라는 시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겨내고,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제주 역사는 세계 문화의 집결지와 같이 한국 본토가 주는 고통까지도 이겨낸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 된 것이다. 육지와 고립된 제주의 특성으로 제주도는 역사의 부침마저도 육지와 달리 영광과 고통이 극단적으로 번갈아 찾아오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는 제주문화의 역사를 근거로 세렌디피티를 통한 제주문화의 다양한 창조를 더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렌디피티를 통한 제주문화의 창조를 모색해 본다면,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적 필연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제주에 보존된 문화는 저 멀리 유럽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인류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도 한다. 새롭게 밝혀진 이론에 의하면 인류가 가장 먼저 문명을 이룬 알타이 지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민족 이동이 이루어져 세계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24] 아랄 지역에서 이동했다는 민족 가운데에는 인도를 침공했다는 아리아족도 있고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는 수메르족, 이집트족도 있으며 이슬람 문화를 만든 아랍족도 있다. 또한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제 민족도 있다고 한다. 홍수와 연관하여 아랄 지역에서 오랜 문화를 함께 이루고 살아왔기에 서로 흩어졌다고 해도 유사한 문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는 아랄 지역에서 흩어졌던 초기 문화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이를 세렌디피티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제주도다. 제주문화는 제주가 섬으로 고립되어 원형의 문화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처럼, 실존적, 구조적 상황 속에 다른 지역과 공감할 수 있는 유비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가장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제주문화의 시원성이 가진 유비적 요소다. 제주가 가지는 공감과 문제해결 능력은 잠재된 시원문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관광객은 제주의 시원문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제주에는 세계에 몇 안 되는 창조신화가 살아 있고, 유라시아에서도 많은 무속과 설화가 남아있기에, 제주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양하게 재단

24) 유목민의 역사에 대한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세계사를 유목민족의 역사로 규정하고 유목민은 빗방울처럼 갈라졌다 합쳤다를 반복해왔다고 한다. 같은 종족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키메르, 쿠찬, 사카, 스키타이, 사르마트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알타이지역에서 기마민족은 각지로 이주하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언어와, 기원지, 종착지에 따라 크게 알타이 어족과 인도-유럽어족으로 나뉜다. 알타이족에 몽고족, 훈족, 투르크족 등이 있었고 인도-유럽어족에 아리아족, 드라비다족, 수메르족, 스키타이족, 게르만족 등이 있었다(자크 아탈리 저,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pp. 128-130.).

해서 세상에 내 놓을 수가 있다.

고립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래된 문화가 보존되어 온 제주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와 설화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대 할망'이라는 천지창조 신화가 그 예이다. 세계에서도 천지창조 신화가 존재하는 곳은 많지 않다. 자기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시원문화로서의 제주문화는 서복을 거쳐 장보고의 신라시대에는 탐라왕국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다. 관점과 방법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진시황과 서복의 이야기, 세계에 몇 안 되는 천지창조의 신화, 이스터섬의 석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돌하루방 이야기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창조적 상상은 제주의 망각된 역사를 더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고, 세계화로 지구촌의 정보가 한 곳에 모이면서 제주의 잊혀진 역사가 상상만이 아닌 개연성 있는 것으로 거듭 창조된다. 사실 이러한 것은 무(無)에서 유(有)로의 창조가 아닌, 무지(無知)와 무관심(無關心)에서 유(有)로의 창조였다. 이러한 상상의 창조적 실현은 고고학과 인류학의 발달과 더불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주도가 지금은 세계적인 7대 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만을 강조하지만, 언젠가 세계 문화의 시원지이자 종착지임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나오는 말

문화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반영하기에 중요하다. 게다가 21세기에 가속화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이 만나 이루

어지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은 문화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제주도의 문화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는 크다. 그것은 제주도가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반도국이 갖지 못하는 색다른 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제주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의 기저에 실존과 구조에서 언급한 섬이라는 것, 자연적 조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문화를 실존과 구조를 통해 분석해 보고, 공감과 유비적 사유를 통해 확대해 보았으며, 세렌디피티를 통해 문화의 창조를 생각해 보았다. 세렌디피티는 우연성을 기초로 하지만, 사실 우연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우연이란 것이 모두 좋은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올바른 행동과 의지에 달려있다. 비록 우연이 성공과 실패를 담보하지 않지만 성공에는 좌절과 실패에 맞서 지속되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상상력이라는 것도 단순히 공상을 권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기초 실력과 준비 속에서 나온다. 세렌디피티는 우연성 이전에 우리의 관점을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곳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실존적 성찰과 구조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틀로서 실체보다는 관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를 실존과 구조의 공감을 통한 주체적 수용, 자연과 역사의 유비적 사유가 주는 감동, 세린디피티라는 우연성을 통한 창조의 모색이라는 관계중심의 틀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낄 지속가능한 감동은 제주가 가진 자연 그 자체보다는 제주도민이 거쳐 온 자연과 문화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있다.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관계지향적인 틀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분석하고, 확대하고, 창조하는 방법은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실로 다양하다. 실존과 구조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

으로서 작용할 것이고, 공감, 유비, 세렌디피티는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 제주의 문화가 적응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것도 '결국 살아남은 것은 강한 종(種)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고 언급한 것처럼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문화를 비롯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제주도의 문화는 고립과 개방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문제를 모순으로 푸는 트리즈의 좋은 예이다. 섬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고립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으로 고립과 개방의 장점을 취하는 문화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버려지고 도망가야 할 대상이었다. 이제는 실존과 구조를 통한 자기 정체성에 맞춰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랫동안 점철되었던 고난과 시련의 역사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의 역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중앙일보』, 2014년 3월 14일자, S1면.

2. 논문

김덕삼・최원혁, 「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 『인문연구』 제6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pp. 455-456.

_____, 「先秦儒家에 나타난 共感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儒敎思想文化硏究』 54집, 2013, 韓國儒敎學會, 成均館大學校 儒敎文化硏究所

우규일, 「서복의 동도(東渡)와 제주 삼성혈 신화」, 『금교(金橋)』, 2012년 4월

호, pp. 124-129.
정창원,「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대한 연관성 탐색」,『역사와 실학』 51 , 역사실학회, 2013. pp. 185-209.
張良群,『中外徐福研究. 第二集(中日韓三國學者供稿 漢日語對照)』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2010.

3. 단행본

고부자 외,『제주문화자료총서 4』, 제주도, 1996
김덕삼,『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김영돈,『제주문화자료총서 2』, 제주도, 1994
문무병 외,『제주문화자료총서 5』, 제주도, 1998.
발터 부르케르트,『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적 전통』, 사계절, 2008
서귀포시서복국제문화교류협회,『영주서복문화』, 제10호, 2010.
_____.『영주서복문화논총』, 제Ⅱ호, 2013.
오동석,『나는 유럽에서 광을 판다』, 두루가이드, 2009
윤병하,『합-1, 버림받은 우리 문화 이야기』, 한국사회문화연구소, 1997
_____,『합-2, 되찾아야 할 우리 문화 이야기』, 한국사회문화연구소, 1997
윤석철,『경영학의 진리세계』, 경문사, 2001
이영권,『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평래,『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1987
자크 아탈리 저, 이효숙 역,『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장혜영,『한국 전통 문화의 허울을 벗기다』, 어문학사, 2010
전경일,『해녀처럼 경영하라』, 다빈치북스, 2010
정수일,『한국 속의 세계』상·하, 창비, 2005.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경남 역,『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현길언 외,『제주문화자료총서 3』, 제주도, 1995.
현용준,『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홍순만,『서복 집단과 제주도』, 제주문화, 2003.

[Abstract]

The Analysis, Expansion, Creation of the Culture of Jejudo

Kim, Dug-Sam · Choi, Won-Hyuk

Though 21st century became the era of culture, a culture always goes beyond expectation like Korean wave. Especially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of an recently aspiring Jeju Culture needs a new culture theory. There are various ways to study culture. This paper applied many types of theories used in a variety of disciplines to study culture of Jeju.

In this context, at first through a existential approach and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this report analyzed the culture of Jeju. Secondly through empathy and analogy, this paper considered the expansion of the culture of Jeju. Thirdly through serendip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eation of the culture of Jeju.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work make a frame to understand and expand the culture of Jeju and encourage the creative success. Three of them has a organic relationship.

The three elements which are features of the island, geopolitic location, and natural geographical conditions form the history of the culture of Jeju. The three elements sometimes make the culture of Jeju contracted, sometimes flightly. By the new paradigm this article try to understand the power of Jeju culture, mingled with nature and history.

Key words: Jeju-do, Existence, Structure, empathy, Analogy, Serendipity

김덕삼
대진대학교 교양교직부 부교수
주소: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인문학관 402호
전화번호: 010-5232-0187
전자우편: konglai@naver.com

최원혁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주소: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전화번호: 010-5533-3900
전자우편: whchoi77@daejin.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13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